

## 조선후기 성인여성머리양식의 특성

유효순<sup>1\*</sup>

<sup>1</sup>혜전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과

###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Hair Sty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yo Soon You<sup>1\*</sup>

<sup>1</sup>Dept. of Fashion Stylist, Hyejeon College

**요약** 본 논문은 영조와 정조가 통치한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조선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머리양식을 고찰하여 조선후기 성인여성머리양식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여성머리양식의 특성과 당시 여성들의 미의식을 규명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극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예술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조선시대 성인여성의 대표적인 머리는 엷은머리와 쪽머리로 그 중 엷은머리가 더욱 유행하였다. 신분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들은 엷은머리의 규모를 크게하기 위해 가체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의 개성에 따라 머리양식을 다르게 하여 각기 다른 조형미를 연출했다. 조선시대는 신분에 따른 복색제도가 엄격하였으나 기녀들은 제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복색에 자유로워 유행을 선도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실학의 영향으로 이미 신분이나 사상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반가나 민서계급의 모든 여성들이 기녀들의 차림을 모방하여 유행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였다. 조선후기 여성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머리양식을 유행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현대와 같이 유행을 추구하였다. 또한 당시 여성들도 얼굴과 가장 가까운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 자신의 미를 강조할 정도로 미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hair sty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inquiring into that hair style and, by extension, having a new understanding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women in those times. The typical hair style of married Joseon women was Ungeonmeori and Jjokmeori, with Ungeonmeori being much more popular. Regardless of socioeconomic status, women used a big Gache as long as conditions permitted. Meanwhile, some women who led the trend or followed the national policy did Jjokmeori and wore Jokdoori. The Joseon Dynasty had a strict clothing system. However, giseangs were free from this restriction and they were free at attire. Therefore, they led the fashion trend. Both noble and common women followed the trend, imitating giseangs' attire. Women's hair style was used as a tool to express one's personal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the hierarchy was already weakened. In fact, it seems that women in those times cared more about hair style trend than clothing trend. This means that those women already had such a high quality of aesthetic consciousness that they showed their hair which is the closest to the face to advantage.

**Key Words** : Ungeonmeori, Gache, Jjokmeori, Jokdoori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며 드

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예술분야에서는 역사극이 다수 방영되고 있다. 역사극에서 복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고증을 통하여 전통복식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현

\*교신저자 : 유효순 (soonu@hj.ac.kr)

접수일 10년 11월 29일

수정일 11년 01월 12일

게재확정일 11년 01월 13일

대인의 취향에 적합하게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역사적 사실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식을 고증하기 위해서는 실물만큼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현존하는 실물이 없으며, 문헌상의 자료나 회화상의 자료가 단편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과거의 복식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행히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가, 사대부, 중인들의 평범한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생활상을 소재로 담은 기록화가 제작되어 복식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성, 기록성, 시대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기록화는 풍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풍속화의 일종이며 당시 사회의 생활, 사상, 감정들을 담고 있어[1] 기록화가 제작된 당시의 유행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풍속화의 제작이 활발하였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후기 복식을 관찰할 수 있다.

조선후기는 영조(1724-1776년)와 정조(1777- 1800년)가 통치한 18세기로, 17세기에 발생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등의 전란으로 인하여 이미 사회·경제분야에서 전통적 사회의 특성을 잃고 있었으며 신분제도 또한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사조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일련의 사상체계인 실학이 발달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명분론의 수정을 도모하는 등, 조선사회 지도이념의 재정립을 꾀하였다[2].

당시 조선사회를 이끌던 주도계층을 중심으로 예술에도 일변된 모습이 나타났다. 18세기의 이러한 문화사조로 인하여 화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문인들도 풍속화를 그렸으며 특히 당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었다. 이들은 금기시하던 여성들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제작하였다. 김홍도는 주로 서민 여성들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제작하였으며 신윤복은 기녀들만이 아니라 저잣거리의 일반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풍속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이들의 풍속화를 통하여 당시 사회 여성들의 복식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

복식은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복식의 일부인 머리양식 역시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머리는 장식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즉 몸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것으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물려받은 인체를 귀히 여겼으며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로 감히 자르지 못

하게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고 머리의 매무새는 걸모양과 인간의 내적인 미까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3]. 특히 조선시대의 여인에게 있어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단정하게 꾸민다는 것은 부덕의 하나이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때로는 사치에 지나쳐 나라의 금령으로 규제한 일까지 있었다[4].

이와 같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머리양식은 단순히 효와 예의 척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장식적 욕구를 표출해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 성인여성머리양식을 고찰하여 당시 성인여성머리양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계층 여성들의 머리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풍속화가 제작된 조선후기만으로 시대적인 제한을 했다.

연구대상으로는 조선후기 성인여성의 머리양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제작된 평생도와 회혼례첩에 묘사된 반가 여성들의 머리 양식과, 기로회도나 김홍도, 신윤복, 윤덕희의 풍속화에 묘사된 기녀와 일반서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선시대 후기 여성의 머리양식에 대한 기록과 시대성·사실성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조선후기 풍속화를 고찰했다. 본고에서 고찰한 풍속화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2년에 개최한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의 도록에 수록된 18세기 풍속화 중 작자미상의 「담와 흥계희 평생도」, 「이원기로회도」, 「회혼례첩」,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여속도첩」, 「미인도」,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과 신윤복의 그림이라고 전해지는 「대궐도」를 포함하여 총 11점으로, 이 11점의 그림을 성인 여성의 머리양식이 표현된 14 장면으로 분할하여 고찰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성인여성의 머리양식을 고찰하여 당시 여성머리양식의 조형적 특성과 유행특성을 규명하고 조선후기 여성의 미의식을 재인식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분이나마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등 영상 예술분야에서 고증자료로 사용하며 나아가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2. 조선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성인여성머리양식

### 2.1 담와 흥계희 평생도(필자미상, 18세기)

담와 흥계희는 속궁 29년인 1703년에 태어나 영조 13년인 1737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문신으로 영조 47년

인 1771년에 사망하였다.

평생도(平生圖)는 벼슬을 지낸 인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만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골라 그린 그림으로, 당대의 생활과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기록화와 풍속화적인 성격을 띠며 민속학 자료로서도 귀중하다. 평생도는 대개 8폭의 병풍으로 제작되어졌으나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10폭이나 12폭 병풍에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대개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의 평생의례 부분과 관직에 나아간 선비가 거치게 되는 여러 벼슬살이의 장면 등을 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평생도의 돌잔치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장면은 혼례복을 입은 노부부가 대례를 올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이것은 장수 중에 으뜸이라는 회혼수를 누리는 사대부의 이상적이고 부귀한 일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5].

### 2.1.1 흥계희 평생도 중 회혼례의 좌측

그림 1은 흥계희를 주인공으로 하는 평생도의 마지막 장면인 회혼(回婚) 장면으로 그림의 좌측에 위치한 주인공과 회혼례를 축하하기 위한 하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림 1] 흥계희 평생도중 회혼례의 좌측

그림에 나타난 주인공은 소매의 통이 넓고 긴 다홍색의 의례용 포를 입고 있으며 머리는 그림의 상태가 퇴색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엷은머리와는 다른 원통형 형태의 높은 장식을 하고 있다. 형태로 보아 족두리나 화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형식 또한 특이하여 이마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없이 높이만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의상과 같이 의식용 머리인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의 뒷편에 위치한 인물들은 의식을 행하는 대청마루 옆에 따로 설치된 장소에 있는 여성들로 직계 가족이라기보다는 이 의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초대된 인물들로 보이며 신분이 높은 여성들로 추측이 된다.

이 그림에 묘사된 성인 여성들은 모두 엷은머리를 하고 있는데 엷은머리의 형태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체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체를 엷은 형태를 보면 뒷목부분에서 가체의 굽기가 가장 굽게 되어 약간 윗부분으로 들려 있으며 아랫부분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위로 높은 것이 아니라 마치 모자의 챙처럼 넓게 연장된 형태로 머리를 꾸민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이 여성들의 가체의 크기를 짐작해보면, 그림상으로는 노출된 옆얼굴의 1.5배를 넘게 돌출되었다.

아마도 이 여성들은 사대부가의 여성들로 옷차림으로 보아 유행을 따르는 여성들로 보이며, 이들이 꾸민 엷은머리의 형태가 당시 유행한 머리의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 2.1.2 흥계희 평생도 중 회혼례의 우측 상단

그림 2는 흥계희 평생도 중 회혼례의 우측 상단의 인물들로 의식을 행하는 대청마루에 위치한 것이나 옷차림으로 보아 주인공의 며느리나 딸 등으로 추측이 된다.

이 여성들이 입은 옷의 색상은 다홍색, 남색, 옥색 등 다양한데 이는 나이에 따라 달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색은 나이에 따라 다르나 머리의 양식은 나이에 관계 없이 족두리에 족두리를 하였다.



[그림 2] 흥계희 평생도 중 회혼례의 우측

## 2.2 회혼례첩(回婚禮帖)

(필자미상, 18C, 조선시대풍속화)

회혼례첩(回婚禮帖)은 혼인한 지 6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혼인의식을 거행하고 장수를 축하하던 회혼례 잔치를 그린 것이다. 회혼은 회갑과 함께 장수와 복록을 누린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례로,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의례행사는 그림으로 나타내 후손에게 전하였다.

### 2.2.1 회혼례첩의 주인공과 직계가족

그림 3은 필자미상의 18세기 회혼례첩의 일부로 노부부가 자손들로부터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받는 현수 광경이다. 현수 장면은 회혼의 절차 중에서 특히 부모의 장수와 여생의 안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시되었다[6].

회혼례첩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여성은 흥계희의 평생도에 보이는 주인공과는 달리 평상복차림이며 상차림 또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흥계희보다는 신분이 좀더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엷은머리는 비교적 규모가 작으나 머리정수리 부분에 커다란 구형식의 장식을 하고 있다. 머리는 그림 1 흥계희의 평생도중 회혼례 주인공의 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구형태의 장식 규모는 주인공의 얼굴크기와 거의 맞먹는 높이이며 중앙 부분에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회혼례첩의 주인공과 직계가족

그림의 좌측하단에 보이는 여성들은 그림의 성격상 주인공의 직계자손들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여성들은 모두 앞부분이 매우 높은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장식의 규모로 보아 떨잠으로 보이는 장식을 하고 있다. 또한 뒷목부분으로 두가닥의 자주색 가는 땡기를 늘어뜨리고 있다.



[그림 4] 회혼례첩의 우측하단

### 2.2.2 회혼례첩 우측 하단

그림 4는 회혼례첩의 우측 하단의 집안 마당에서 행사를 구경하는 인물들로 그림의 성격상 집안의 노비나 신분이 낮은 계층의 여성들로 추측된다. 이 여성들의 머리는 엷은 머리이긴 하나 엷은머리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뒷부분에 늘어트린 두가닥의 자주색 땡기 또한 짧은 편이다.

### 2.3 이원기회도(梨園耆老繪圖)

기로회도(梨園耆老繪圖)란 왕의 나이 60세가 되면 70세가 되는 고령의 중신(重臣)들과 모여 연회, 즉 '기로연(耆老宴)'을 가졌는데, 이때 연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로회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기로소는 태조3년인 1349년 70세가 넘는 중신들을 공경하기 위해 처음 설치된 기로로, 중기 이후에는 정5품 이상으로서 70세 이상이 된 문신만이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원기로회도는 1730년 21명의 기로들이 이원에 모여 시가를 읊으며 친목을 도모한 것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으로 기로회 장면 왼쪽에는 기로회 명칭을 적은 표제와 당대 시인이자 문장가로 알려진 최주악(1651-?)을 비롯한 21명의 참석자들의 이름, 자와 출생연대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7]. 1730년은 영조가 즉위한지 7년째 되는 해로 비교적 영조가 통치한 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는 기로연 장면 중 하나를 묘사한 그림으로, 이원기로회도 중앙 하단의 그림으로 가무를 하는 여성들을 묘사한 장면이다.



[그림 5]이원기로회도 중앙

이 그림에 묘사된 여성들은 기녀의 신분으로 보이는 여성들로 모두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머리 뒷부분에는 두 갈래의 가는 끈 모양의 자주색 땡기를 허리선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이고 있다.

이 여성들의 엷은머리 형태 또한 앞부분이 매우 높아 이마 위로 옆얼굴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올라가

있다.

## 2.4 단원 김홍도의 빨래터

그림 6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중 빨래터의 그림으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신분이 낮은 계층으로 보인다.



[그림 6] 김홍도의 빨래터

그림의 좌측 위편에 있는 여성은 빨래터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 여성으로 옆에 아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젊은 여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아직 머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머리의 절반은 머리 위에서 땅아서 오른쪽 어깨 위로 얹어놓고, 남은머리는 정수리에서 땅기 시작하여 중간중간에 가체를 넣어가며 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엮은머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자신의 머리를 이용하여 엮은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여성들도 연령층은 비교적 젊은 것으로 보이고 모두 엮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엮은머리의 규모가 작은 편이긴 하나 앞 이마부분에서 마치 모자의 챙처럼 넓게 꾸미고 있다.

## 2.5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

혜원전신첩은 총 30면으로 혜원이 살았던 그 시대 도시풍속이 생생한 회화적 증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조선시대에 표현하기를 꺼렸던 기녀나 여체의 대담한 표현으로 시대의 금기를 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신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은 조선후기 복식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는 풍속화이다[8].

### 2.5.1 단오풍정

그림 7은 신윤복의 단오풍정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여성들로 차림으로 보아 기녀로 보이는 여성들이다. 두 여성은 모두 규모가 큰 엮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중앙의 여성

은 머리를 꾸미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엮은머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가체는 굵기가 매우 굵고 길어도 길며 양 끝은 자주색 땀기로 묶은 상태로 가체의 크기로 보아 엮은머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림 7] 단오풍정 우측상단

왼쪽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은 이미 머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머리의 꾸민 형태를 보면 앞이마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 비대칭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오른쪽 여성은 엮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 미완성 된 상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 여인의 가체 역시 매우 규모가 크며 그네 타는 여인과는 반대로 왼쪽머리부분이 크고 높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그림 8] 단오풍정 좌측하단

그림 8은 단오풍정의 좌측 하단부의 그림으로 물가에 서 몸을 씻고 있는 장면이다. 이들 역시 여염집 아낙네라기보다는 기녀의 신분일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얼굴보다 큰 형태의 엮은머리를 하고 있는데 가체의 끝이 모아지는 부분에 자주색 땀기를 사용한 것이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여성들의 엮은머리의 형태는 모두 비대칭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높고 큰 것으로 보아 모두 가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2.5.2 계변가화

그림 9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들로 그림에 묘사된 여성들은 신분이 낮은 서민계층의 여성들로

보인다.



[그림 9] 계변가화

그림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비교적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의 머리는 규모가 작은 엷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왼쪽 이마쪽으로 약간 늘어져 있다. 엷은머리의 규모로 보아 약간의 가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부의 머리를 꾸미고 있는 여성은 비교적 젊어 보이는 여성으로 머리의 반은 땅아서 오른쪽 어깨위로 늘어트려 놓고 왼쪽어깨위로 남은 머리를 땅고 있는 상태다. 이 여성의 앞에 땅지 않은 가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엷은머리의 규모를 크게하기 위한 가체로 보이며, 땅고 있는 머리의 굽기로 보아 엷은머리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하단 중앙의 여성 또한 매우 젊어 보이는 여성으로 엷은머리의 규모가 매우 크며 앞이마부분에서 앞으로 모자의 챙처럼 넓게 꾸몄다.

## 2.6 저잣길

저잣길은 혜원의 여속도첩중 하나로 여속도첩은 기녀와 일반 서민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으로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혜원의 다른 그림과는 달리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부각시켜 당시 여성의 복식을 자세히 표현하였다

그림 10에는 일반 서민계층으로 보이는 두 여성을 묘사하였다. 머리에 장을 본 듯 생선을 넣은 함지박을 이고 있는 왼쪽의 젊은 여성은 규모가 큰 엷은머리를 하고 있는데 가체를 꾸민 형태가 독특하다. 머리형태를 보면 앞이마 부분에서 땅은 머리를 틀어 끈듯한 모양으로 하고 중앙 부분에 가체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머리를 높게 하기 위해 앞 머리 부분에 가체의 끝을 꼬아 모양을 낸 듯하다. 가체를 넣은 양옆은 약간 잘록하고 뒤로 가며 볼록하게 나와 있다.

그 앞에 등을 보이고 있는 여성은 나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엷은머리이긴 하나 규모가 매우 작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두 여인의 엷은머리의 형태에서 둘 다 자신의 머리라기보다는 가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젊은 여성은 엷은머리의 꾸민 형태로 보아 가체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초라한 행색의 노인은 비록 엷은머리의 형태가 작고 초라하지만 규모가 작은 가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저잣길

## 2.7 신윤복 아기 업은 여인

그림 11에 보이는 여성은 아기를 업고 있는 여성으로 이 여성의 차림으로 보아 일반 여염집 여성이라기보다는 기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머리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엷은머리로 가체를 땅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돌돌 말아올려 마치 현대의 꼴을 한 모습과 같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올려 꾸민 형태를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뒷부분으로 가며 굽게 되어 얼굴의 왼쪽부분에서는 얼굴을 가릴 정도로 늘어지게 하여 왼쪽과 오른쪽을 비대칭으로 꾸몄다. 정수리 부분에서는 현대의 꼴과 같이 굽게 장식적으로 말아 높게 올렸으며 오른쪽 머리 위에 폭이 좁은 남색 땀기가 보인다.



[그림 11] 아기 업은 여인

## 2.8 신윤복 미인도

그림 12는 신윤복의 미인도로 당시 전형적인 미인의 모습으로 보이긴 하나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아 이 여성 역시 여염집 부인이라기보다는 기방의 기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머리는 엷은머리로 엷은머리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엷은머리의 위치도 머리 윗부분에 위치

하여 마치 남성들의 갖의 양태와 같은 느낌을 연출하였다.. 가체의 굽기는 전체적으로 균등하며 오른쪽 머리쪽에 폭이 좁은 자주색 땡기를 하고 있다.



[그림 12] 미인도

### 2.9 윤덕희 독서하는 여인

윤덕희(1685-1776)는 숙종11년에 태어나서 영조 52년에 사망한 조선후기의 문인화가로 공재 윤두서의 아들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화업을 계승하였다. 윤덕희는 산수인물, 말 등을 잘 그렸으며 유작으로 독서하는 여인외에도 송하인물도, 미인가마도 등 여러 점이 있다.

그림13은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을 그린 그림으로 옷차림으로 보아 여염집 여인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머리는 엷은머리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며 엷은머리의 위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나 앞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머리 뒷중심 부분에는 검정색의 가는 땡기가 늘어져 있다.



[그림 13] 독서하는 여인

### 2.10 전 신윤복 대궐도

그림 14는 신윤복의 그림이라고 전해져 오는 대궐도는 우리나라 고유놀이인 택견과 씨름을 보고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의 상단부분이다. 그림에 보이는 여성은

분위기로 보아 기녀로 보이며 신윤복의 다른 그림에 등장하는 기녀의 머리와는 다르게 쪽머리를 하고 있다.



[그림 14] 대궐도

## 3. 조선후기 성인여성머리양식의 특성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여성의 머리양식 역시 신분에 따라 달리 하였으나 왕실을 제외한 기혼여성의 머리는 엷은머리로 상대시대부터 이어 내려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습용되었다. 조선시대 출가녀에 있어서 대표적인 머리는 엷은머리와 쪽진머리로서 그 중 엷은머리란 속명 트레머리라고도 하며 가체(加髻)로 머리를 꾸미는 체계(髻髻)라고 할 수 있다. 엷은머리에 사용된 가체양식은 본인의 머리칼만이 아니고 타인의 머리칼인 가체를 더하고 양분하여 좌우로 틀어 두상에 엷고 그 끝은 오른쪽에 끼우고 매개땡기로서 묶어 늘어 뜨리는 계양이다[9].

조선후기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머리양식 역시 대부분 엷은머리이긴하나 등장인물들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총14장면으로 신분에 따라 반가녀의 머리양식과 기녀의 머리양식 및 민서녀의 머리양식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3.1 반가녀의 머리양식

표 1은 반가녀의 머리양식으로 총4장면이며, 그 중 3장면은 의식장면이며 1장면만이 평상시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그림 1과 그림 3은 의식의 주인공으로 머리 양식이 장식적으로 높게 꾸며져 있으며 머리의 장식형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꾸민 형태가 원통형으로 유사하나 그림 1의 주인공 머리가 의상이 화려함과 동시에 높이를 강조하고

[표 1] 반가녀의 머리양식

작품명	그림	신분 (추정)	머리양식	머리양식의 특징
홍계희 평생도	1	반가녀(주인공)	엷은머리	원통형 높은 양식, [그림 4]와 유사
		반가녀	엷은머리	머리규모가 큼
회혼례첩 (작자미상)	4	반가녀(주인공)	쪽머리	족두리를 하였음
		반가녀(직계손)	엷은머리	규모가 큰 구형, [그림 1]과 유사
독서하는여인(윤덕희)	13	반가녀	엷은머리	뿔잠, 두 가닥의 자주색땀기 어깨 아래까지 길게 늘어트림
		반가녀	엷은머리	낮음, 자주색 땀기 뒤로 늘어트림

장식적으로 꾸민 반면에 그림 3의 주인공은 그림 1의 주인공에 비해 소박한 편이다. 조선후기 문신인 채제공(蔡濟恭:1720-1799)에 의하면 “가난한 유생일지라도 가체의 비용이 6·70량이 들며 제대로 수식을 갖추려면 수백금을 소비해야 되는데 가전을 파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 양반이라는 신분에 반드시 경제적 우세가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며[10] 이로부터 그림의 주인공이 둘 다 반가여성이라고는 하나 주인공의 개성이나 경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의 회혼례에 초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모두 엷은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엷은머리는 매우 고계로 꾸며져 있다. 이들이 꾸민 고계는 이미 조선왕조 중엽부터 유행한 머리로 엷은머리를 높게 하기 위해 가체가 성형하였다. 가체(加髻)란 머리를 높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래 혹은 월자라고도 하며 크고 길수록 호사로 여기고 상류사회에서는 상품만을 비싼값으로 손에 넣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에게는 재산목록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는데[11] 일계의 값이 중인 열집의 재산을 넘을 정도였다[12]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홍계희의 회혼례에 초대된 인물들은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높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그림 2로서 그림 1의 주인공인 홍계희의 직계손으로 보이는 여성들로 모두 쪽머리에 족두리를 하고 있다. 조선중엽부터 여성들의 가체가 점점 커지면서 고계(高髻)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성종대에 대두되기 시작하여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고계에 대한 폐단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귀천의 차이 없이 절대적인 조건으로 경제력에 따라 여성들의 가체에 대한 사치가 날로 심해지자 영조 32년 사족부녀의 가체를 금하고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하는 체계금지령(髻髮禁止令)이 내려졌다[13].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녀자들의 가체에 대한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심지어는 가산을 탕진하는 자까지 있어 국법으로 여러 차례 금지시켰으나 실천이 어려웠으므로[14] 영조대의 체계금지는 처음 발

령된 지 8년만에 폐기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체계의 대용인 족두리를 일반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뿌리 깊이 박혔던 체계의 습속이 하루 아침에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15]. 그러나 홍계희는 1703-1771에 생존한 인물로서 그림 2에 쪽머리에 족두리가 등장한 것으로보아 대부분이 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왕의 령에 따라 쪽머리에 족두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주인공 옆에 앉아 있는 직계손으로 보이는 여성들은 모두 높은 엷은머리를 하고 있는데 뒷목부분 아래로 두가닥의 자주색 가는 땀기가 어깨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으며 뿔잠을 머리에 꽂아 장식을 하였다. 땀기는 가체의 끝을 맺는데 사용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식적인 역할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은 평상시의 모습으로 비교적 낮은 형태의 엷은머리이긴 하나 땅아서 올린 규모로 보아 이 역시 가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가체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꾸며져 있으며 목 뒷부분으로 자주색 가는 땀기가 늘어져 있다.

### 3.2 기녀의 머리양식

표 2는 기녀의 머리양식으로 그림 5만 제외하곤 모두 평상시 기녀들의 모습이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엄격하였으나 기녀는 예외였다. 기녀의 신분은 비록 천민이긴 하나 기능을 가진 여성으로 그들이 상대하는 남성들은 왕족이나 사대부가의 남성들이었으므로 사회적 지위와는 달리 복색에서 자유로웠다. 그 예로 숙종 이후 임금이 내린 명령을 모아 영조 19년(1743년)에 편찬한 신부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에 “사족의 부녀로서 수놓은 의상을 입는 자는 가장을 아울러 논죄한다. 사대부의 첩과 서자, 의원, 역과, 잡직 등에 있는 사람의 처로서 교자를 타는 자, 초피녀모(貂皮女帽)를 쓰는 자, 상한(常漢)의 계집으로서 사라능단을 착용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녀와 기생을 금하지 말



[표 2] 기녀의 머리양식

작품명	그림	신분(추정)	머리양식	머리양식의 특징
이월기 회로도	5	기녀	엷은머리	떨잠, 두가닥의 자주색 가는 땡기 허리까지 늘어트림
단오풍정 (신윤복)	7	기녀	엷은머리	규모가 큼, 자주색 가는 땡기로 가채양끝을 묶음, 1인 가채를 꾸미는 과정
	8	기녀	엷은머리	규모가 큼, 머리 오른쪽에 자주색 땡기
아기엷은 여인 (신윤복)	11	기녀	엷은머리	규모가 큼, 땅지 않고 틀어서 모양을 만들 폭이 좁은 납색땡기
미인도 (신윤복)	12	기녀	엷은머리	매우 큼, 자주색땡기
대궐도 (전신윤복)	14	기녀	쪽머리	

[표 3] 민서녀의 머리양식

작품명	그림	신분(추정)	머리양식	머리양식의 특징
회혼례첩 (작자미상)	4	민서녀	엷은머리	머리규모가 작음, 두가닥의 자주색 가는 땡기 뒤로 짧게 늘어트림
빨래터 (김홍도)	6	민서녀	엷은머리	규모가 작음, 1인 엷은머리 꾸미는 과정
계변가화 (신윤복)	9	민서녀	엷은머리	노인은 낮고 젊은이는 규모가 큼, 1인 가채를 꾸미는 과정
저잣길 (신윤복)	10	민서녀	엷은머리	노인은 낮고 젊은이는 큼

라”[16]라고 되어 있다. 이로부터 조선시대의 기녀들은 복색에서는 사족의 부녀자들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기로연에서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기녀들로 의상은 평상복이며 엷은머리의 형태도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나 머리에 떨잠을 꿋고 자주색 가는 땡기도 허리까지 늘어뜨려 장식적으로 꾸몄다. 이들의 땡기길이 그림 3이나 그림 13의 반가여인의 땡기보다 긴 것으로 보아 기녀들의 땡기는 장식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과 그림 8은 동일한 그림으로 단오날 그네를 타거나 머리를 감는 등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모두 가채를 꾸민 형태가 매우 장식적이며 규모가 큰 편이다. 가채의 규모는 자신들의 얼굴크기만 하며 끝을 맺은 부분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자유롭게 맺었고 엷은머리의 형태 또한 각각 다르며 가채의 끝을 여미는 땡기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1는 아기를 업은 기녀의 모습으로 엷은머리의 형태가 가장 특이하다. 다른 여인들이 가채를 땅아서 엷은 것과는 달리 현대의 켄 모양이 되도록 땅아서 엷었으

며 엷은 형태 또한 한껏 멋을 내서 왼쪽으로는 흘러내리듯 늘어뜨리고 오른쪽 이마 위에서 흥색땡기로 잘룩하게 맺어 비대칭으로 꾸몄는데 전체적으로 땅지를 않고 느슨하게 땅아서 올린 모양으로 독특하며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2의 미인도에 묘사된 기녀는 단정한 모습의 미인으로 엷은머리의 규모가 매우 크긴하나 전체적으로 단정하게 꾸였다. 가채를 단정하게 땅아서 머리 위로 둥그렇게 포아리 틀듯이 올린 모습이 마치 커다란 땡이 있는 모자모양과 비슷하다. 오른쪽 머리부분에 폭이 좁은 자주색 땡기 두가닥과 머리 끝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 머리에서 끝맺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녀의 머리는 절제된 단순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에 등장한 기녀는 남성들과 구경을 나온 기녀로 이제껏의 기녀들과는 달리 쪽머리를 하고 있다. 쪽머리는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은 머리로 높은 엷은머리가 유행하고 있던 시기로 보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당시 유행을 선도한 패션리더라고 보겠다.

조선시대 기녀들이 유행을 선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이덕무는 일반부녀자들이 기녀들의 차림을 모

방하는 것에 대해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창기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의 남자들이 이에 매혹되어 자신의 처첩에게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한다. 아 시례가 닦이지 않아 귀중부인이 기생의 복장을 하도다”[17]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서민층의 부녀자는 물론 사대부가의 부녀자들까지도 기녀들의 복색을 따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당시 부녀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고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사치를 조장한 여성들은 누구보다 조선시대의 기녀들로서 이들은 단순한 직업여성이 아닌 신분을 초월하여 당시 유행을 이끌어간 현대의 패션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3.3 민서녀의 머리양식

표 3은 민서녀의 머리양식으로 총 4장면으로 모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서녀의 머리양식 역시 젊은 여성이나 연로한 여성이나 모두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의 경우는 엷은머리 규모나 가체를 꾸민 양식이 반가녀나 기녀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

그림 9의 상단에 위치한 여성은 엷은머리를 하기 위해 머리를 땅고 있는 상태로 땅는 머리 사이에 넣을 가체를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보아 완성했을 때의 머리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상류사회에서는 크고 긴 값비싼 가체를 사용한 반면 서민의 아낙네들은 값싸고 짧은 다리를 몇 개고 이어서 비슷하게 하여 사용하여 사치가 심해지므로 법령으로 가체에 대한 제한이 여러 번 되었다[18]는 것으로 보아 길이가 길고 품질이 좋은 가체의 값은 비싸므로 중간 중간에 가체를 넣어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의 아래 부분에 보이는 젊은 여성의 엷은머리는 조형적인 면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신분이 일을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체의 규모가 크며 이마 앞 쪽으로 가체의 굵은 부분을 약간 늘어지게 한 것이 특징적이다. 가체의 끝은 오른쪽에 다홍색의 폭이 좁은 땡기로 맺어 장식적인 역할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민서녀의 그림 중 그림 10에 표현된 젊은 여성의 엷은머리는 조형적으로 독특하게 꾸미고 있다. 이마 부분에 마치 어염족두리를 한 것과 같이 가체를 넣어 앞으로 돌출되도록 하였으며 오른쪽은 잘룩하게 하여 독특한 모양으로 가체를 꾸몄다.

이 그림에 묘사된 서민 여성들로 보아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민서 계층의 여성일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체를 꾸며 유행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연로한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엷은머리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꾸민 양식이 단순하다.

## 4. 결론

이상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머리양식을 고찰하고 영조와 정조가 통치한 시기에 해당하는 당시 성인여성머리양식의 특성을 조형적 특성과 유행현상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 ① 의식을 행할 때의 머리는 일상생활에서의 머리양식과는 다른 형태로 꾸며 독특한 조형미를 연출하였으나 머리양식의 기본은 높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 ② 엷은머리의 스타일은 원형이 일반적이거나 개인에 따라 한 쪽을 잘룩하게 하기도 했고 양옆을 잘룩하게 하기도 했으며, 앞부분이 유난히 돌출되게도 하는 등 개성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를 연출했다..
- ③ 엷은머리의 끝은 폭이 좁은 땡기로 맺었는데, 끝을 맺는 위치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맺기도 하고 뒷부분에 맺기도 하는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리하여 기능적인 동시에 장식적으로도 사용하였다. 땡기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양옆에 맺을 때는 땡기의 길이가 짧으며 뒤로 맺을 때는 땡기의 길이가 길었다. 뒤로 맺을 때 땡기의 길이도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기녀들은 허리선까지 닿을 정도의 길이였으며 반가의 부녀자들은 어깨 아래 등부분까지 닿을 정도였으며 민서녀들은 그보다 좀 짧아 어깨선 정도까지 닿는 길이였다.
- ④ 가체를 꾸미는 방법은 땅는 것이 보편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이다. 그러나 개성이 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체를 땅지 않고 굽게 말아올려 전체적으로 현대의 굽게 킨을 한 것과 같이 독특한 조형미를 연출했다.
- ⑤ 가체를 엷는 위치도 개성에 따라 달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마에서 뒷목부분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꾸미는 것이 보편적이며, 개성에 따라 머리 윗부분에 굵은 가체를 감아 조형적으로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의 양태와 같이 연출했다.

다음으로 유행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 ① 조선시대 성인여성의 대표적인 머리는 신분에 관계 없이 엷은머리를 하였으나 영조가 커다랗고 사치스런 엷은머리를 금하며 사족의 부녀는 쪽머리에 족두리로 대체하도록 령을 내렸으므로 일부 영조의 뜻을 따르는 사대부가의 여성들이나 유행을 선

도하는 기녀들은 쪽머리를 하기도 하여 영조대부터 이미 쪽머리가 유행의 장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 ② 엷은머리의 크기는 클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신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커다란 가체를 사용하여 엷은머리의 규모가 대단히 커졌다. 반가녀일지라도 검소함을 따르는 성인여성은 머리의 규모가 작은 반면에 민서녀일지라도 유행에 동조하는 여성여성들은 엷은머리의 규모를 크게했다.
- ③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복색제도가 엄격하였으나 기녀들은 제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복색에 자유로워 유행을 선도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실학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반가녀나 민서녀 모두 기녀들의 차림을 모방하여 유행에 동조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여성들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 자신의 미를 강조할 정도로 미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머리양식을 유행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현대와 같이 유행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역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머리스타일을 정확히 표현하여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대중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며 또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유옥경, 조선시대 기록화에 보이는 풍속적 요소,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266, 2002
- [2]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 pp132-135, 2001
- [3]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제, p72, 1985
- [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396, 1980
- [5] 김승희 외,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88, 2002
- [6] 김승희 외,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298, 2002
- [7] 김승희 외,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301, 2002
- [8] 김승희 외, 조선시대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p302, 2002
- [9] 배정룡,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 아시아여성연구 vol.2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p288

- [10] 蔡濟恭의 변암집을 인용한 배정룡, op.cit.,p277
- [11] 이덕무, 靑莊館全書, 사소절, 권지 30 복식을 인용한 석주선(1985), op.cit. p66
- [12]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97, 1980
- [13] 영조실록권 87, 32년 정월조
- [14]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제, p67, 1985
- [15]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401, 1980
- [16] 新補受教輯錄
- [17] 이덕무, 靑莊館全書
- [18] 이덕무, 靑莊館全書, 사소절, 권지 30 복식을 인용한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제, p66, 1985

유 호 순(Hyo-Soon You)

[정회원]



- 198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가정학석사)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학박사)
- 1986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부교수

<관심분야>  
패션디자인, 무대의상